



왼쪽부터 소나타(1986), 담배 파랑새, 애니안성남면(1992), 슬라이드형 핸드폰(삼성), 1945~1955년 생산된 해태제과 제품. 이들 제품에는 당대의 역사와 삶이 투영돼 있다. <글항아리 제공>

# 한국인의 삶을 입힌 디자인들

## 일상과 감각의 한국디자인 문화사

조현신 지음



“디자인된 인공물 모두가 태어나서 변화하여 지속되다가 소멸하는 생명체 같다. 일단 태어난 어떤 물건은 일정 기간 성장하면서 이에 따라 변화하며 존속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든 개체의 보존을 위해 환경에 맞추어 변형을 꾀하게 된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어쩌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적응하여 발전하겠지만 열악한 환경에 부딪히면 친숙한 형상에서 왜곡되고, 일탈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정한 사물이 사랑을 받거나 또는 잊혀진 이면에는 사람들의 삶이 투영돼 있다. 사물들은 모두 디자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시대의 욕망이 담겨 있다. 디자인은 다양한 모양과 색채를 통해 당대의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를 보면 살아온 방식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삶을 만든 15가지 물건의 디자인 역사를 조명한 책이 발견됐다.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조현신 교수가 쓴 ‘일상과 감각의 한국디자인 문화사’는 ‘우리가 사랑한 물건들로 본 한국인의 자화상’이다. 책은 지난 2015년 경향신문에 연재됐던 원고를 보강해 몇 가지 사물을 더하여 완성했다. 저자는 근대 개화기 이후 130년 동안 빛어낸 디자인의 연대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의 관점으로는 다소 투박하고 촌스럽지만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았던 디자인을 다룬다. 차, 라면 포장지, 책 표지, 휴대폰 등의 디자인이 그 대상이다. 그렇다면 라면 포장지는 왜 주황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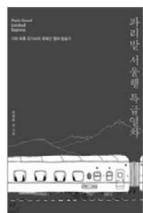
많을까? 소나타의 눈은 왜 더 날카로워지는 걸까? 이 모든 것은 디자인과 관련이 있다. 직접적으로는 한국인의 당대의 삶을 대변하며 일상의 미학을 드러낸다. 라면 봉지에 주황색이 많은 것은 “사랑스럽고 대중적이며 오렌지, 당근과 살구가 그렇듯 입에 균형을 들게 하는 맛의 색”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인 에바 힐러는 ‘색의 유희’에서 “밝지만 노랑처럼 눈부시고, 따뜻하지만 빨강처럼 덥지 않아서, 정신과 육체가 즐겨는 색”이라고 말한다. 경제발전 시기의 한국인의 정서가 묻어나는 물품 가운데 하나가 ‘해태 카라멜’이다. 저자는 전통 상징인 해태를 전면에 내세운 디자인으로 본다. 기업의 성장이 곧 애국의 길이라 여겨지던 시대와 맞물린 것으로 해태제과는 이후 고속도로 등에 동상 수십 개를 기증하기도 했다. 경제 활황 시기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중형차다. ‘질주하는 욕망’을 상징하는 자동차는 2000년 이후 램프에 있어서 적

잖은 변화를 겪었다. 저자는 “램프가 주는 형상성만으로 볼 때 소나타는 개성이 강하고 힘이 세며 몸이 사나운 얼굴을 한 공격적인 형상으로 변해 중산층을 겨냥한 차로써 가지런 특유의 느낌이 없어졌다”며 “벨트라인이 위로 올라가면서 창문의 느낌은 날렵하고 세련되어진 반면 차의 바디가 주는 무게감은 더해지면서 아반떼와 소나타, 그랜저의 구분이 쉽지 않아졌다”고 설명한다. 사실 디자인은 실용 미술이라는 측면에서 ‘도구’의 숙명을 지닌다. 정부 주도의 디자인에서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반공 방침’, ‘남세로 자립경제’ 등의 표어를 달았던 담뱃갑들에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디자인은 내밀한 삶의 기억을 환기해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요소다. 저자가 말처럼 “그 형태와 색깔을 통하여 우리네 삶의 감각과 친밀성이 환기된다”는 면에서 적잖은 의미를 내포한다. <글항아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후회들과 화해하다 보면 어느새 종착역

## 파리발 서울행 특급열차

오영욱 지음



스, 러시아, 몽골, 중국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담은 기록이다. 지난 4월 떠난 그의 일정은 이렇다. 파리에서 출발해 2박 3일간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한다. 모스크바를 출발해 4박 5일간 기차를 타고 이르쿠츠크에 도착한다. 연결편을 타기 위해 2박 한 후 2박 3일간 울란바토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다. 1박 후 베이징을 출발해 밤기차로 단둥 압록강 철교 앞에 도착하고 마지막으로 단둥을 출발해 서울에 도착한다.

천천히 달리는 대륙 횡단 열차에 몸을 실은 그는 열차 안에서, 그리고 체류지에 잠시 머물며 보고 느낀 풍경과 생각을 글과 일러스트, 사진, 지도 등에 담아냈다. 그는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하루가 한 두 시간씩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경험은 비행의 시차부적응 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대지의 거대함을 체득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철도 횡단의 여정은 순례길을 걷는 과정에 비유되는 잠들음과 깨어남의 싸움으로 아팠던 일들을 지워가고, 잘못했던 일들을 반성하며, 후회되는 일들에 화해를 청하다 보면 어느새 아득했던 종착역에 도착하는 환희를 누리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매일 매일 시간시간대 별로 기록을 남겼다. “뭘 이렇게 꼼꼼히 기록했나” 할 정도로 꼼꼼히 기록한 글과 그림에는

웃음도 몽롱함도 함께한다. 이 책의 재미는 부록처럼 실린 뒷 이야기다. ‘여정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륙 횡단 열차에 타볼 만한 이유들’, ‘평생 장거리 철도여행을 하지 않을 이들을 위한 ‘열차 대리 체험 요소’들, 기차에서 바라본 풍경, 기차안에서의 생활, 기차에서 먹은 음식까지 세심히 적었다. ‘새 중앙역 구상’, ‘극동아시아 노선도와 유라시아 노선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합된 ‘한반도 철도 노선도’를 그려며 한반도 대륙 철도시대를 꿈꾸기도 한다. 5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다시 열차 여행을 기약한다. 유레일 패스로 떠나는 ‘48일간의 유럽일주’, 미국 열차를 섭렵하는 ‘신대륙의 희망과 추억’, 온갖 맛있는 도시락을 먹으며 떠나는 일본 철도여행, 그리고 서역기행과 남극일주다. ‘열차덕후’라든 솔깃한 기획이다. <페이퍼스토리·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이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역)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 기담 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 동양 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방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중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리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 청학 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 셋강다슬기

서구 풍곡로 12번길 11(풍암고 정문앞) 다슬기수제비 탕, 다슬기토장탕, 다슬기탕 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병환 ☎062)233-3636

###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 박당 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 석당 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 토산 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

## 새로 나온 책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 이 책에는 외모 콤플렉스, 지나친 자책과 책임감, 애착 강박, 뒤늦게 찾아온 오춘기 등 12가지의 상담 사례가 실려 있다. 성인이 된 지금의 문제에서 출발해 엄마와의 갈등과 상처에서 원인을 찾아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나간다. 여성이라면, 딸이라면, 엄마라면 누구나 한번쯤 공감하고 생각해볼 법한 이야기들이다. 각각의 끝에는 각각의 상황마다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사용법’이 담겼다. <글출판사·1만4000원>

▲아이들의 작업실=칼군무, 달콤한 멜로디, 화려한 스타일링, 스토리텔링 마케팅... 케이팝 열풍의 아이군, ‘아이돌’에 따라붙는 표현들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아티스트, 우지, LE(엘리), 라비, 방용국, 박경은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뜨거운 산업군이라 할 수 있는 케이팝, 그중에서도 아이돌팝 업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털어놓는 ‘음악이라는 일’ 이야기는 담백하고도 진솔하다. <위즈덤하우스·1만3800원>

▲No! 백번 말해도 No! 이 책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 수도 없는’ 세 남매(영그리드·안·한네)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다. 한곳에 머물러는 사람과 늘 떠나려는 사람 그리고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느 순간 변화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